

문화일반

# 문화를 대하는 지적 관심 다양화

김창남

성공회신학대학 교수·신문방송학

**다양한 영역으로  
관심 폭을 넓힌  
문화담론은 최근  
종합적인 문화론과  
전문·세분화된  
접근의 두가지 양상을  
띈다. 올해도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이며  
미래문화적 변화에  
대한 욕구로  
정보통신혁명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표출될  
것이다.**

‘문화의 시대’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한지도 꽤 되었다. 그만큼 요즘 지식인 사회에서 문화에 대한 관심은 일반화되어 있다. 문화에 대한 지적 관심의 폭발은 90년대 초부터 불어닥친 이른바 ‘포스트’라는 접두사의 선풍과 함께 이루어졌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마르크시즘, 포스트 자본주의 따위의 개념이 등장하고 과거의 패러다임이 낡은 것으로 비판받기 시작하는 것과 함께 문화는 일약 이 시대의 중심 담론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명과 역사의 전환이라는 현상에서 문화가 중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처음 문화에 대한 관심은 ‘문화읽기’ 특히 ‘대중문화 읽기’의 차원으로 모아졌다. 80년대 내내 민중문화에 대한 대립영역으로 간주되면서 비판의 표적이 되었고, 진지한 분석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대중문화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대중문화를 통해 시대와 현실의 흔적과 징후를 찾아내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강영희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든가, 김종엽의 《웃음의 해석학, 행복의 정치학》, 백지숙의 《이미지에게 말 걸기》같은 평론서들은 당위적 운동론의 차원에 머물렀던 80년대의 문화비평과 달리 대중문화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통해 그 문화적 의미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의 분석대상은 TV·만화·영화·광고, 심지어 장난감이나 전자게임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세기말의 문화가 기존의 장르 구획을 허물어뜨리면서 새로운 차원의 장르 개념을 만들고

있는 현상과 상응한다. 이제 문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장르 개념을 넘어 다담론적이고 다학문적인 문제영역으로 등장한 것이다.

대중문화 읽기의 열풍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문화평론가들을 낳았을 뿐 아니라 과거에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주변적인 영역으로 치부했던 문화영역들을 지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 들였다. 특히 성과 육체, 사이버스페이스, 공간 등의 문제들이 새로운 문화적 주제로 각광받게 되었고 이에 관련된 서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에는 그저 알파한 호기심에 편승한 책들도 적지 않지만 나름대로 진지한 문제의식으로 문화론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한 책들도 많다. 성정치학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서동진 등의 책들이나, 강내희 교수의 《공간, 육체, 권력》등은 지적 유행과 무관하게 문화론을 풍부하게 만든 작업들이다. ‘문화과학사’나 ‘현실문화연구’ ‘한나래’ 같은 출판사들이 꾸준히 펴내고 있는 문화관련 책들은 이 어지러운 문화담론 시장에서 나름의 무게중심을 잡아 준다.

대중문화 읽기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관심의 폭을 넓힌 문화담론은 최근 들어 두가지 흐름을 보여준다. 하나는 좀더 깊이 있고 종합적인 문화론의 시도이다. 그것은 우선 문화론의 고전적 저작에 대한 접근으로 나타난다. 최근 최중철씨에 의해 번역된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문화취향의 사회학》이나 임영호 교수가 나름의 시각으로 편집한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같은 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부르디외나 스텐달은 모두 문화론의 대가급 연구자들로서 그들의

책은 그저 단순히 지적 유행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무겁다. 들뢰즈, 가타리, 푸코 등의 저술과 함께 이 책들은 우리 문화론의 깊이와 무게를 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하나의 흐름은 다양한 장르와 분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접근이다. 대중음악이나 영화, 만화 등에 대한 좀더 전문적인 평론서와 이론서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얼터너티브 록이나 뮤직비디오, 특정 장르의 영화 등에 관한 컬트적 관심을 반영하는 논저들은 문화에 대한 지적 관심의 폭이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요컨대 문화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원론에 대한 욕구와 좀더 분화된 각론에 대한 욕구가 긴밀히 맞물리면서 깊고 널리 가지치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97년에도 지속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원론적 관심과 함께 고전적인 저작들의 무게있는 소개가 활발해질 것이고,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화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21세기가 코앞으로 닥치면서 미래의 문화적 변화에 대한 지적 욕구가 커지는 만큼 이른바 정보통신혁명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해명 욕구를 크게 할 것이고, 각론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사회의 비전을 찾으려는 시도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시도들 가운데 어떤 것은 현실을 이해하고 좀더 복되게 만들려는 실천에 도움을 줄 것이고 어떤 것은 혼란과 아노미를 부추길 것이다. 늘 그랬듯이 스스로 사고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책이 현실을 앞서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

〈謹賀新年〉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보내 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은 40여년의 긴 세월을 아우르는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새해를 출판유통현대화의 원년으로 삼아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임직원 모두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박기봉 전무이사 이주영

이 사 : 강해작(기문당) 강희일(다산출판사) 이수길(대림) 전병석(문예출판사) 안종만(박영사) 배효선(법문사) 최영희(석담) 김재은(세경사) 최선호(세계사) 이문철(영진출판사)  
남용(일신서적출판사) 김철영(전원문화사) 손영일(전파과학사) 김병준(지경사) 오응근(지문사) 김경희(지식산업사) 고영수(청림출판사) 김언호(한길사) 김중수(한울) 서영두(홍문관)  
감 사 : 전인식(건설연구원) 한인환(기문사)